

# 안철수 마침내...

## 저서 '안철수의 생각' 전격 출간... 사실상 대선 출사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19일 전격 출간된 저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원장의 저서는 청소년에게 조언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펴려한데다 "도전은 힘이 들 뿐 무서운 것이 아니다"는 구절이 시사하듯이 대선 출마에 대한 그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저서 출간을 통해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 책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4·11 총선 전에는 아권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아권의 대선후보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안원장이 책에서 밝힌 현안 해법**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합으로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 분산**시켜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기업 낙하산 인사 차단** **통일문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경제협력** 확대

다. 그러나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아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안 원장은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내 생각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다양한 자리를 통해 채워나갈 수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만간 출간기념회나 작년가지 진행한 '청춘콘서트' 형식을 통해 잠재적 유권자와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6쪽 분량의 저서는 일간지 기자 출신인 제정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안 원장의 삶은 물론 정의, 복지, 재벌, 비정규직, 언론과업 등 정치사회적 현안과 남북문제 등을 두루 조망했다.

안 원장은 우리사회의 과제를 정의

롭고 공정한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손꼽았다. 복지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복지를 늘리면 남유럽처럼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는 주장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선 출발전, 과정, 재도전에서 공정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 문제는 경제 민주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며, 재벌의 경쟁력을 살리되 내부 거래 및 관련 상속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 원장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 분산,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기업 낙하산 인사 차단 등을 제시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을 '사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경제협력 모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신간 '불티' 잡스 기록 돌파할 듯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신간이 발간 직후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19일 정오부터 '안철수의 생각' 판매를 시작한 결과 주문량이 세 시간 만에 1500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에 약 8권씩 팔려나간 것으로, 첫날 판매량은 7500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예스24 관계자는 "2010년 3월 법정 스님 입적일에 '무소유'가 판매된 일일 기록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하는 속도"라고 전했다. 알라딘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폭주해 오후 5시까지 3200부가량 팔려나갔다고 전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지난해 '스티브 잡스' 전기가 세운 일일 판매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초 집필...정치권 관심 높아 앞당겨

**■ 기습 발간 배경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이 19일 기습 발간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판사인 김영사는 지난 16일 안 원장으로부터 '안철수의 생각' 최종 원고를 넘겨받아 19일 오전 언론과 서점에 배분했다. 단 4일 만에 편집과 디자인, 인쇄와 제본 작업 등을 초고속으로 완료한 것이다.

안 원장의 신간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발간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 관계자는 "무리한 일정을 감행"해 "출판에 전례가 없는 결과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서점가도 예상보다 발간이 앞당겨지면서 19일 오전 긴급히 진열 작업에 돌입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화제가 되는 책이수록 출판사에서 배분일을 예고하는데 이런 '기습' 발간은 처음"이라며 "하지만 워낙 관심이 쏠린 책인 만큼 즉각 진열 준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김영사 측 제안으로 지난해 초 집필을 시작했으나 대선 출마설과 맞물리면서 발간 시점이 늦춰져 왔다.

/연합뉴스

## “與 대선자금 수사 손 놓고 총구 야당으로 돌려 물타기”

### 민주, 검찰에 맹공

민주통합당은 19일 파이시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가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선 경선용 자금"이라고 진

술한 것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 전 방통위원장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구(舊)한 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엔 손을 놓은 채 제1야당으로 총구를 돌려 대선자

금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기로 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으나 검찰을 향한 표정은 얼지지는 않았다.

전날에는 "재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이날은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선 원내 지도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지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증거가 나오는데도 목격자나 명백한 증거 진술이 없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선 공작수사로 목을 죄고 칼춤을 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 "집권세력 앞에서는 공작처럼 꼬리 꼬고 춤춘다", "정권의 비리·부패엔 눈감고 야당 입엔 재갈을 물린다"면서 검찰 개혁의지를 다졌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바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가 출두하는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한명씩 무죄 시전'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수추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展



### 인체에 정치·경제·대중문화 상표 아이콘 입혀

**김준 작**  
**'Bird land- Chanel'**

눈길을 확 사로잡는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작품에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두고 싶은 게 모든 작가의 바람이라면 확실히 성공한 듯하다. 별거벗은 몸뚱아리에 문신이 가득하고 사넬 같은 대중적 이미지도 눈에 띈다.

김준씨의 작품세계는 '문신 미술'이란 용어로 대표된다. 10년 넘게 문신을 주제로 해온 그의 2008년 작품 'Bird land- Chanel' (새의 땅-샤넬)도 인체의 디지털

이미지에 정치·경제·대중문화의 상표적 아이콘들을 입혔다. 인간의 몸뚱아리를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고 그 위에 갖가지 문신을 그려넣는다.

작가는 세계가 개인의 삶에 강제적으로 새기는 제도, 신념, 취향, 교육, 사회현상, 전통 등 '사회적' 문신과 그 문신에 집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길들여 지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김준씨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거쳐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338호 (2012.6.28)

## 복잡하고 어려운 퇴직연금, 퇴직연금 1등 파트너 삼성생명에게겐 답이 있다!

- 가입자수 1위, 퇴직자수 1위
- 전문 컨설턴트의 종합은퇴설계
- 평생 보장되는 종신형 상품
- 모바일/온라인 서비스까지

**Q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은퇴 설계가 필요해요**  
직장인 12만여 명 설문조사 (38)

**A 3중 연금분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턴트**  
 안정성과 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삼성생명 퇴직 연금은 은퇴설계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국민/개인/퇴직연금을 통합한 3중 연금 분석으로 노후설계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연금같은 장기 거래 상품은 처음인데 어렵게 하네요?**  
신앙사원 조석연 씨 (28)

**A 장기자산운용 능력과 안정성에서 인정받는 삼성생명**  
 신입사원일 경우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합한다면 50~60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난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닌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생명은 단기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내 최대규모의 퇴직자산 운용 실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장기자산 운용 전문회사로 벌써 많은 분들께 선택 받고 있습니다. (금강원 공시 2012. 4월 기준 퇴직자산 7,5조, 가입자수 80만명)

**Q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데, 퇴직연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25만여 명 설문조사 (45)

**A 100세 시대는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종신형 상품으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퇴직후 일시금으로 찾으시거나 연금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수령이 가능한 기간형 연금상품만 있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는 평생동안 연금수령이 가능한 종신형 상품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종신형으로 선택하시면 평생도록 안심하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직장생활 하느라 바빠서 금융기관 방문할 틈이 없어요**  
직장인 7만여 명 설문조사 (33)

**A No.1 삼성생명이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첨단 시스템**  
 DC형과 IRP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 조회는 물론 상품조회/변경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청구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1등 파트너 삼성생명**

지금 퇴직연금의 답을 만나보세요  
**1588-3115**

**직장인의 필수품이 될 IRP** (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은퇴시점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2012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불입도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까지 바로 써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직/퇴직시 퇴직금을 IRP로 옮기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물론, IRP로 퇴직금을 옮긴 이후에는 개인이 유지 또는 해지 수령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보다 편리한 노후 준비를 위하여 이직/퇴직시 퇴직금을 그때 그때 써버리지 않고, IRP에 꾸준히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약관 및 운용관리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기간이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한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